

2006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논문

기형도 시의 부정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은 성



기형도 시의 부정성 연구

A Study on Negativity in Ki Hyeong-do's Poetry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은 성



기형도 시의 부정성 연구

지도교수 백 수 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은 성



최은성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서론	1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2. 연구사	3
I. 부정적 세계인식의 형성	7
1. '가족'에 대한 체험과 삶	7
2. 전망부재의 혼돈의 시대	.11
Ⅱ. 시・공간에 드러난 부정성	.15
1. 부정성이 배태된 시간	.15
1) 과거와 묶인 현재	15
2) 미리 늙어버린 '몸'	.26
2. 부정성이 놓여 있는 공간	.35
1) 떠돎의 공간, 공중 '빈' 곳	36
2) '빈' 집에 스스로 갇힌 외톨이	43
V. 결론	.55
《참고문헌》	.58



ABSTRACT

A Study on Negativity in Ki Hyeong-do's Poetry

Choi Eun-seong

Advisor: Prof. Baek Soo-in.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oet 'Ki Hyeong-do' has assured many readers and the research him was joined together continuously in spite of a shot literary world life and a little products. The reason was seen to come from his original poetic world distinguished with the other poets. That is, It is just that a negative, tragic view of the world and his own image contained a symbolic means even his poems, lifetime and deaths.

His negativity of poem means a perfect break against a hope and out look. So It's not easy to find the reason of answer 'yes' in the his poetic world. The childhood which appeared on the stage of his poem is a space that can't be capable of a pain and suffering in young age.

After the father died suddenly with paralysis, the mother taked on her's own shoulders the living and the sisters helped the household economy by delivery a newspaper other etc. So a young 'Ki Hyeong-do' possessed a in frospective nature came to more a lonely life. Besides in because



death experience of sister and uncle's in boyhood.

The features of his life became to a negativity and tragedy with a consistent tone. Accordingly In search for his poetic meaning, We have to say 'The Death' appeared in the poem. But It will not be able to explain that a ceremony of death experienced of which poverty and death in childhood. So, it will need to look around the time and space ceremoney expressed at the text.

Also to grasp of those is because that can look in a poet's senses. His an idea of time shows a tragic reality recognition in the poem formed a continuous and made-up the world of death drawing death of future in the present. And Attachment regarding a empty space confines oneself in empty house and become attempted a break with the world.

In causing of a sudden poet's death, it showed that urgent and dangerous despairs can be a total of the life to him from time to time. This is a reason that only 'death' will be reaming Look through Ki Hyeong-do's poet.

For a break with the world, till he rocked the door of himself in inside and he was confined, we will be able to share his death's ceremony internalized while following his life.



I. 서 론

1. 연구목적과 방법

기형도의 삶은 짧았다. 그의 시 속에서 예언한대로 그는 일찍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즉, 그의 죽음에는 누이의 죽음과 삼촌의 죽음이 놓여 있고,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삶이 놓여 있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마저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의 유고시집은 시인이 생존에 기획한 대로1) 출간이 되었고 짧은 문단 활동 기간과 그리 많지 않은 작품량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 세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형도 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은 것은 그가 '요절시인'이라는 것과 그의 시 세계가 동시대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그만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시 세계에 펼쳐진 부정적 이고 비극적인 세계관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기에 그의 시편을 통해 삶을 긍 정하는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기형도 시에 대한 여러 평과 논문을 통해 볼 때 제각기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나, 그 목소리에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비극적 삶의 인식을 규명한다.'라는 특질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그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시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그가 시 속에서 표현했던 부정적이고 암울한 절망들이 때로는 그의 삶을 관통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형도의 부정적인 의식의 근거로 대부분 그의 불우한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본고 또한 기존의 이러한 연구에 기본적으로 동조하면서 Ⅱ장에서는 기형 도의 부정적 세계인식의 근원을 극심한 가난의 시련과 가족의 죽임이 도사리

¹⁾ 성석제는 기형도가 1989년 가을에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시의 배열도를 그린 푸른 색 공책이 있을 만큼 열정적이었다고 한다.('기형도, 삶의 공간과 추억에 대한 경멸',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기형도 추모문집), 솔, 1994, p.237.)



고 있는 가족적인 원인과 전망부재의 혼돈의 시대인 1980년대의 사회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인들이 생산해 내는 시는 작가의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할 때 시인의 과거를 돌이켜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부정적인 세계관의 시초를 엿볼 수 있을 것이며 기형도의 시 세계가 어둠과 암흑으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다소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에 드러나 있는 부정성의 시적 특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형도의 시 속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시들이 많다.

'그리운 생각들이란 얼마나 죽음의 편에 서 있는가'(「10월」),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나리 나리 개나리」), '살아서 헛것이었다'(「물 속의 사막」)등의 과거의 아픈 체험을 현재로 끌어와 동일시하여 현재의 부정성을 극렬하게 드러낸다거나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정거장에서의 충고」), '내가 차라리 늙은이였다면!'(「추억에 대한 경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직젊은 시인이 대상화된 자아인 '늙은 타자'의 몸을 빌려 미리 늙어버리기를 추구하며 미래의 죽음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숭숭 구멍'(「위험한 家系·1969」), '빈방에 혼자 엎드려'(「엄마걱정」), '텅 빈 희망 속'(「먼지 투성이의 푸른 종이」),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질투는 나의 힘」) 등과 같이 기형도 시 속에서 '빈' 속성을 가진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그 '빈' 공간에는 절망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에 희망이 배제되어 있는 기형도의 부정성이 흐르고 있다. 즉, 기형도의 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시인이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형도 시에 있어서 시·공간을 파악하고자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의 흐름에 따른 시·공간을 빗겨가 시인의 개인적 시·공간으로 변주되면서 부정성의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형도의 시작품은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61편을 비롯하여 5주기 추모 문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솔출판사, 1994)에 16편, 『기형도 전집』(문학과 지성사, 1999)에 추가된 20편을 합쳐서 97편이다. 본고는 『기형도 전집』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그의시 세계가 희망이 부재하는 극단적 부정성을 지닌 세계관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부정성이 결국 '도저한 죽음'의 세계에 닿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사

기형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의 유고 시집『입 속의 검은 잎』이 출판되면서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2)이라는 해설을 쓴 김현의 논의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은 기형도의 시가 공격적인 허무감, 허무적 공격성이라는 점, 늙음과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은 아주극단적인 비극적이고 부정적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의 시는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말하며 이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3)이라 명명했다.

기형도의 시가 "유년/소년 시절의 상처인 가난"과 "젊은 날의 상처인 이별"

²⁾ 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속의 검은 잎』, 문학과 지성사, 1989, 해설.

³⁾ 김현은 기형도의 시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러한 '그로테스크 리얼리 즘'이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로 시를 만드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가령 기형도 시에 나오는 하늘을 두꺼운 종잇장으로, 태양을 노랗고 딱딱한 것으로 비유하는 이미지나,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처럼 서로 엉키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비연대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나, '공기는 푸른 유리병'이라는 만화영화의 이미지 같은, 그러나 개별자들의 고립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이미지들이, 비일상적이고, 괴이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그의 시가 그로테스크한 것은 아니다. 그의 시가 그로테스크한 것은, 그런 괴이한 이미지들 속에, 뒤에, 아니 밑에 타인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져, 자신 속에서 암종처럼 자라나는 죽음을 바라다보는 개별자, 같힌 개별자의 비극적 모습이, 마치 무덤 속의 시체-그로테스크라는 말은 원래 무덤을 뜻하는 그로타에서 연유한 말이다. -처럼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데에 있다'는 데에 있다. 시인은 우선 그의 모든 꿈이 망가져 있음을 깨닫는다. (김현, 위의 책, pp.144-146.)



을 추억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으며 이 개인적 상처의 체험으로부터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의 흔적이 거의 없는 아주 극단적인 비극적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김현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기형도 시를 분석·연구함에 있어 '가난과 실연의 상처'라는 전기적인 사건으로 인한 '죽음에의 편향'이라는 정형화된 논의의 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 이후 기형도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세계관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몇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철화는 "유년의 넋과 꿈에로의 책읽기의 세계"를 출발점으로 "그를 질질 끌고 다니며 바스러뜨린 폭압적 현실 세계"를 귀착점으로 잡고 있다. 유년을 낙원의 공간으로, 성년은 낙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자가 떠도는 길 잃은 자의 공간으로 쉽게 도식화할 수 있으나, 기형도의 시에 등장하는 유년의 세계는 단지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폭풍같은 바람이 부는 굶주린 시련의 공간이며, 아버지의 풍병과 삼촌, 누이가 죽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지적한다.4)

장석주는 "기형도의 시들이 삶의 길 없음의 인식을 그 창조의 원천"으로하고 있는데, 그 길 없음의 배경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부조리성에 대한 투명한 각성에서 형성된 비관주의적 인식"에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시 세계를 삶과 현실의 떨쳐낼 수 없었던 부조리와 무의미성에 의해 일그러진 내면의 상처를 보여준 내면화된 비관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기형도 시의 특징을 "오래 망설이며, 회의하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마침내인간 삶의 보편적 명제 - 실존의 부조리성과 무의미성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 두고 있다.5)

정효구는 기형도의 시에는 오직 죽음만이 살아 있으며, 그의 시집에서 줄 곧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것들은 이상하게도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라 꺼져가는 죽음들이라는 것이다. 그의 시집에서 이러한

⁴⁾ 박철화, 「집 없는 자의 길 찾기, 혹은 죽음」, 『문학과 사회』, 1989, 8, pp.1094~1111.

⁵⁾ 장석주, 「기형도 혹은 길 위에서의 중얼거림」, 『현대시 세계』, 1989, 9, pp.76~90.



죽음들은 다양한 형태를 드러내며 하나의 거대한 고리를 이루는 가운데 침울하게 일렁거리기에 기형도의 시집에는 수많은 죽음의 이미지가 페이지마다 얼룩처럼 박혀있으며, 그의 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끔찍한 허무주의와 비극적 세계관이야말로, 80년대 시단의 지평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임태우는 기형도의 시에 드러난 좌절과 절망의 언어들은 그 공격성과 저돌적인 극단성으로 볼 때 기존의 서정적인 시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매우 이질적이라고 말하며 기괴하다고 할 수 있는 그의 황폐한 비유들은 기형도의시가 간직하고 있는 가능성의 미덕이라고 하였다. 즉, 기형도의 내면 세계는책 속의 세상과 일치하며 사물을 읽고, 현실을 읽고, 사람조차도 읽는다고 하였다. 책의 세계는 기형도의 자아 내부에 존재하는 바깥세상이며, <안에 존재하는 바깥> 그곳을 떠돌며 탐사하는 일, 바로 그것이 기형도의 시 쓰기이고 때문에 그의 글쓰기 대상은, 그의 자아라는 경계선 안쪽으로 국한된다고 논하였다.7)

박상찬은 기형도 시 텍스트 안에서 본 것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무한 그것 뿐이라고 말하면서 한 존재에게 내린 세계의 형벌, 그 가혹함을 논의의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으리라 여기며 말하고는 기형도의 텍스트를 횡단하는 죽음의 사유와 상상력에 대해 논의하였다.8)

이러한 기형도의 부정적인 세계관에 미약하게나마 '희망 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논의들이 있는데 그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관규는 유년의 독서 체험에서 구축된 동화적 세계를 "유년의 세계, 동화적 시 세계, 통과제의적 세계, 통시적 동일성의 세계, 이야기 시의 세계"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문관규의 이러한 논의는 기형도의 시에 대한 최초의 학위논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9)

⁶⁾ 정효구,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현대시학』, 1989, 2, pp.251~270.

⁷⁾ 임태우, 「죽음을 마주보는 자의 언어」-〈잎 속의 검은 잎〉의 세계에 대하여, 작가세계, pp.393-406.

⁸⁾ 박상찬,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의 상상력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남진우는 동화적 공간을 찾아 헤매는 한 지순한 영혼의 편력이 기형도의 시 세계¹⁰⁾이며 기형도의 시편에 드러나는 모티프를 시인의 실체 체험의 일부로 환원시켜 해석하는 김현과 달리 시인의 시편에 나타난 여성이 시인의 어머니-누이의 변형이라고 보면서 기형도의 시 세계는 시인의 내면에 자리잡은 원초적 여성상에 대한 그리움이며 그 여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지난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시인은 잃어버린 시간, 떠나왔던 공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낭만적 영혼의 지순한 꿈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¹¹⁾

김경복은 기형도가 유년에 대한 순수한 퇴영을 지향하며, 그 퇴영을 통한 "절망의 시작은 희망의 시학"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기형도의 시 세계의 본질은 화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한 자아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극명히 드러내는 데 있다. 따라서 기형도 시 세계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일부예외적인 논의는 기형도 시에서 드러나는 일관된 모습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형도가 하나의 희망을 품은 채 시를 써 내려갔다면 그의 시 세계가 그처럼 부정의 흔적들로 물들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논의들에서도 기형도 시 세계에서 '비극성'을 제외시킨 채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기형도 시에 드러나 있는 긍정의 힘이란 아주 극히 미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비극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형도 시 세계의 핵심적 요소가 '부정성'에 있고, 그 부정성이 '도저한 죽음'의 세계와 닿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⁹⁾ 문관규, 「기형도 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¹⁰⁾ 남진우, 「신성한 숲」, 『신성한 숲-남진우 평론집』, 민음사, 1997. pp.34-44.

¹¹⁾ 남진우, 「숲으로 된 푸른 성벽」, 『숲으로 된 성벽-남진우 평론집』, 문학동네, 1999, pp.158-200.

¹²⁾ 김경복, 「유배된 자의 존재시학」, 문학과 비평, 1991, 3, pp.244-258.



Ⅱ. 부정적 세계인식의 형성

기형도는 일찍 가난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길고 긴 투병생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 전선으로 뛰어든 어머니와 누이들, 그 리고 누이의 죽음과 삼촌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기형도의 부정적인 세계관 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가족은 모든 인간에게 일차적인 관계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본 원적인 의식 형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최초의 경험들은 이 로부터 이루어지며, 참된 안락과 행복한 정주(定住)의 꿈 또한 가족이 내포하 고 있는 원초적 보호막 속에서 생성한다. 스물 아홉에 요절한 기형도의 근원 적 존재감을 설명하는데도 그의 '가족'에 대한 체험과 기억은 매우 유효한 인 자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그에겐 가족간에 존재해 있어야 할 원초적 보호막 이 애초부터 찢겨 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기형도의 부정적인 세계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둡고 외로웠던 그의 불우한 유년의 체험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형도의 부정적인 세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유년의 가족사적 궁핍의 기억뿐만 아니라 1980년대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는 절망 또한 내재해 있다고 보아 이 장에서는 개인적 상황과 더불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가족'에 대한 체험과 삶

기형도는 1960년 3월 13일(음력으로는 2월 16일), 경기도 옹진군 연평리 392번지에서 아버지 기우민과 어머니 장옥순 사이의 3남 4녀 중 막내로 출생

¹³⁾ 엄경희, 「상자 속에 채집된 아이러니적 존재-기형도론」, 행복한 시인의 사회, 이화현대시연구회, 소명출판, 2004, p.230.



하였다.14) 아버지 기우민 씨의 고향은 연평도에서 건너다보이는 황해도 벽성 군 가우면 국봉리였는데(어머니 장옥순 씨의 고향은 옹진군) 6·25를 만나당시 황해도 피난민의 주 이동로인 연평도로 건너왔다. 일제시대부터 공직에 있었던 아버지 우민 씨는 연평도의 거의 유일한 행정기구였던 면사무소에서 근무해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의 피난민이 섬을 떠난 것과는 달리 옹진군에 정착하였다.

1964년 음력 8월(양력으로는 그해 9월)에 일가족이 연평을 떠나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현재 광명시 소하동)로 이사하였다. 이사 오기 전 아버지는 민주당원으로 활동했는데 영종도 간척 사업에 몰두했다가 정부보조금 단절과 여러 가지 압력으로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 시흥에 자리를 잡고 가족을 불렀다. 장성한 3남매는 출가하고 어린 4남매는 3년쯤을 지금 마을회관이 된곳에서 살았다.

기형도는 1967년 3월에 시흥국민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안양천 뚝방을 걸어 시흥대교를 지나 지금의 시흥 본동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길은 2킬로미터 정도였다. 당시 시흥과 소하리 일대의 주민들 중 많은 사람이 기아자동차와 대한전선을 다녀 길에는 회색, 또는 카키색 작업복이 넘쳤다. 그 길은 안개가자주 끼었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와"(「안개」)등교를 했다. 기형도는 공부 외에, 그림과 음악에도 재주를 보여 임명장과 상장으로 라면 상자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상을 받았다.

1968년 봄에는 아버지가 평생 처음 직접 지은 집에서 가족이 살게 되었다. 이 집은 그의 여러 시에 나타나듯 외풍이 심한「바람의 집」이자「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으로「바람은 그대 쪽으로」부는 들판이 보인 그런 집이었다.

그러던 중 1969년 음력 정초에 세배 온 동네 사람들과 모처럼 들어온 양주 를 마시던 아버지가 쓰러져 중풍으로 눕게 된다. 가장이 "유리병 속에서 알약

¹⁴⁾ 이후 전개되는 기형도의 연보는 성석제의 책을 바탕으로 함을 밝힌다.(성석제, 앞의 책, pp.222-239.)



이 쏟아지듯"(「위험한 家系・1969」) 쓰러지는 바람에 얼마 없던 전답은 아버지 약값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어머니는 생계 일선에 나서고 누이들도 신문배달 등으로 가계를 도왔는데 아직 어린 기형도는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우는"(「위험한 家系・1969」) 내성적인 생활을 해 나가게된다. 아버지는 그 후 타계할 때(1991. 8. 19.)까지 23년간을 투병생활을 하게된다.15) 따라서 아버지가 쓰러진 그 때 열 살이었던 기형도는 죽는 순간까지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유년의 공간은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은 가장인 아버지이다. 그 중심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주변의 것들이 모두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낱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원적인 근거지의 해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형도의 유년의 공간 또한 어린 나이에 감당해내기 어려운 시련이자 부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되는 공간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기형도의 시에서 가난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가족의 죽음이다.

기형도가 중학교 3학년이던 1975년 5월 16일에 바로 위 누이인 순도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 가해자가 같은 교인이었던 까닭에 어린 날의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누이의 죽음에 의한 충격으로 형제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무채색 옷을 입음으로써 각각 그 슬픔을 삭였다.

기형도에게 이와 같은 유년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가난과 누이의 죽음이라는 시련, 그리고 살아있지만 부재나 다를 바 없는 아버지의 상실 등 의 부정적 의식이 넘실대는 곳이다. 따라서 그가 성년이 되어 끊임없이 유년 의 기억으로 회귀하지만 그곳은 가족의 따뜻함이 살아 숨쉬는 안정적인 공간 이 아니라 절망적이도록 외롭고 위태로운 공간이 되는 것이다. 기형도의 유

¹⁵⁾ 기형도의 아버지는 1969년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기형도가 죽은 후 1년 반이 지난 1991년 8월 19일 타계하기까지 23년간 투병생활을 하였다.



년의 기억에서 누이는 "냉이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위험한 가계·1969」) 다니고 어머니는 "가늘은 유리막대처럼 위태로운 모습"(「폭풍의 언덕」)이며 시인 자신 역시 "찬밥처럼 방에 담겨"(「엄마걱정」)있는 곳이다.

이러한 암울한 유년의 시기를 지나 기형도는 1979년 2월에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월 연세대학교 정법대 정법계열에 입학하였다. 그 때 교내문학 모임인 연세문학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인 문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합평회에 「연습」등을 내보이게 된다. 1980년 3월에는 정법계열에서 정치외교학과로 진학하였다.

그리고 '80년대의 봄'이 시작되었다. 그는 철야농성과 교내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시위 중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그해 5월 15일을 전후하여 시내 시위에 가담하였고,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제주도를 제 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 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당시 기형도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형사가 찾아와 서적 등을 수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 가 학회 일을 보았는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두 분명치 않다.

1984년 10월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였고, 1985년 1월에 『동아일보』 신춘 문예에「안개」로 당선되었으며, 그해 2월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 업하고, 신문사에서는 수습 후 정치부로 배속되었다.

1986년 문화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고 문학과 출판을 담당하면서 관련 인사와 활발한 교유를 가졌다. 1988년에는 다시문화부에서 편집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시기가 기형도에게는 시의 폭죽이터지던 시대였다. 김현은 이미 그때『중앙일보』문학월평을 통해 기형도의시에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기형도는 시인하재봉의 주도로 매주 인사동의 카페를 전전하면서 열리던 '시운동 청문회'16)

^{16) &#}x27;시운동'은 1980년 12월, 하재봉, 류시화, 박덕규 등이 참여해 창단한 동인이다. '시운동'을 등 단 지면으로 삼은 박덕규, 이문재, 이륭을 비롯하여 많은 젊은 시인들이 함께 동인으로 활약했다. 기형도도 '시운동' 7집에 시를 실었다. 이 '시운동' 동인은 매년 1~2차례씩 동인지를 내는 한편으로 시낭송회 등의 행사를 열어 왔는데 1988년 무렵부터는 하재봉의 발의로 동인들의 시집이나



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시운동 청문회'는 신작 시집을 낸 젊은 시인을 초대하여 시를 좋아하는 청춘들이 청문회를 벌이던 모임이었다.

1989년에는 문학과 지성사의 편집장을 맡고 있던 평론가 임우기로부터 시집을 내자는 연락을 받고 그 해 가을에 출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그는「빈집」등의 신작시를 써 내는 한편 습작 시절에 썼던 시들도 고쳐서 발표하였으며, 시집의 구성에 대한 시나리오도 여러 차례 만들었다. 어깨에 멜 수 있는 그의 검은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푸른 색 노트에 항상 시의배열도를 여러 차례 그렸다. 유고시집『입 속의 검은 잎』은 그가 남긴 시집배열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던 중 1989년 3월 7일 새벽, 기형도는 서울 종로의 파고다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17) 당시 검시 의사 소견으로는 알콜을 포함, 약물 복용의 흔적이나 외상은 없고 사인은 뇌졸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89년 3월 9일, 그는 경기도 안성 소재 천주교 수원교구 공원묘지에 묻히면서 만 29세의짧은 일생을 끝맺게 되었다.

2. 전망부재의 혼돈의 시대

1980년대는 기형도에게 대학시절이었고 그 시기는 암울함이 가시지 않은 군부독재의 시대였다. 때문에 당시의 대학 캠퍼스에는 무거운 침묵과 어두운 탄압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학생 운동의 물결은 넘쳐났으며 기형도 역시 암울했던 1980년대 상황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가까운 분들의 신작 시집을 두고 공개 서평 모임을 가졌다. 카페에 둘러 앉아, 시집을 낸 시인을 앞에 두고 하는 대화식 세미나여서 그 무렵 화제가 된 5공 비리국회 청문회의 이름을 따서 '시운동 청문회'라는 별칭을 붙였다. 다변이기도 한 기형도는 이 모임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감을 발표했다.(박덕규, 『시인열전』,청동거울, 2001, p.55.)

¹⁷⁾ 김훈은 극장 안에서 변사한 기형도에게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생사를 거듭하지 말아라>라 했고, 김현은 오마르 카이얌의 시를 빌어 <우리 모두 오고가는 이 세상은 / 시작도 끝도 본시 없는 법! / 물은들 어느 누가 대답할 수 있으리오 /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형도의 대답은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김영애, 「물속의 사막-기형도론」, 문예운동 71호, p.253.)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가 시위에 직접 참여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흔히들 1980년대를 '시의 시대'¹⁸⁾라고 명명한 바 있다. 시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시대, 그리하여 민족적 역량이 용광로처럼 들끓었던 열정의 시대¹⁹⁾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형도 또한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시 속에 표현하면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환상, 환멸이라는 이중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만일 환상이라는 말이 유신독재를 청산하는 새로운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환멸이라는 말은 그 민주화로의 부푼 꿈이 강력한물리력의 횡포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은 1980년대만의 유일한 것도 아니며, 그것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들의 누적이며 되풀이일 뿐이다. 말하자면 이 땅의 역사는 세계사적이 모순과 질곡을 한 몸에 지닌 채 한과 분노의 감정으로써 그 역사적 상처를 달래 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는 그 한과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적 장치로써 양식화 된다."20)

1980년대는 하나의 희망이라는 담론을 형성해 주던 소소한 빛이나마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던 시대였다.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대학시절」) 존경하는 교수는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업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소리의 뼈」)을 보여 주었다. 침묵은 세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러한 단절과 거부는 현실 세

^{18) 80}년대의 시가 갖는 전진적인 추진력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조감해보면, 크게 보아 하나는 이 성복에서 기형도로 이어지는 모더니즘계열의 시들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환에서 백무산으로 이어지는 리얼리즘계열의 시들이다. 물론 이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80년대적 특색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시적 경향으로서 이성복이나 황지우보다 더 치열하게 반시적 세계를 밀고 나아간 박남철에서 이윤택, 장정일로 이어지는 해체시 지향의 시들이 갖는 80년대적 특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없다. 또한 물신주의적 사회의 타락상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진흙소로 나아간 최승호의 시들은 물론 하재봉, 이문재의 시들 또한 상상력의 저변을 확대해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최동호, 「억압에서 해방으로의 시적 변증법-80년대 시에 대한 하나의 시각」, 『80년대 젊은 시인들-이성복에서 기형도까지』, 시민, 1990, p.248.)

¹⁹⁾ 최동호, 위의 책, p.247.

²⁰⁾ 반경환, 「80년대의 시적 전개 양상과 90년대 시의 생성의 자리」, 『현대시 세계』, 1992년 여름호, p.17.

Collection @ chosun

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형도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대학시절」)되던 부조리한 시대의 모습들에 깊게 관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없었던 중간 자적 존재의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인 압박 감에 휩싸여 결국 공포를 느끼고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입속의 검은 잎」) 두렵다고 말하며 영원히 굳게 입을 다물고 말았던 것이다.

"정신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1980년대의 시인들에게는 대체로 부성(父性)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으며, 기성의 권위가 뿌리 채 흔들린 시대였다."²¹⁾ 기형 도의 시 속에서도 아버지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힘을 거세당한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아버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형도는 거기에서 운명처럼 자신의 죽음과 같은 삶을 본 것이며 그 풍병든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조로(早老)-가지 잘린 늙은 나무)'의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의 다름 아닌 것이다.

"기형도는 유년 시절의 가난 체험을 통해 최초로 '늙음'을 경험한 후, 대학시절에는 정치적 부정의를 목격하면서 정치적 부정의에 항의하는 동료들의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는 갈등으로부터, 또 사회에 나와서는 관리사회의 거대한 억압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이 되어 겉늙음을 경험"22)한 것이다.

개인을 시대의 통제권력 안에 가두게 되는 전망부재의 상황에서 문학의 현현은 그 시대적 징후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기형도의 시

²¹⁾ 대부분 1950년대 전반에 출생한 그들의 성장 환경에는 각각의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유년기에는 6・25동란의 상처가 심대하게 자리잡고 있었을 터이며, 그들이 막 세상에 눈뜨기 시작할 무렵의 소년기에는 유당정권의 타락과 1960년의 4・19혁명이라는 시대적 격류가 그들의 정신 속에 소용돌이쳤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갔거나 한 가정을, 그리고 한 민족을 감당해 나갈길이 없는 아버지상에 깊이 침윤된 그들의 감성에 부딪쳐 온 것은 1970년대 전반의 10월 유신과 70년대 후반의 10.26사태와 같은 정치적 격변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1980년대를 원죄의 낙인처럼 짓누르는 광주 항쟁과 같은 민족적 시련이었던 것이다. 1980년대 젊은 시인들의 시적 감수성에 떨쳐버리기 어려운 증오와 불신이 끈적거리고 있으며, 피의 냄새가 느껴진다는 것은 결코우연이 아니다.(최동호, 앞의 책, p.250.)

²²⁾ 장정일, 「기억할 만한 질주, 혹은 용기」,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솔, 1994, pp.190-191.



가 놓이고, 그의 시학이 그 도저한 부정성이라는 미학을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Ⅲ. 시·공간에 드러난 부정성

1. 부정성이 배태된 시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그 연속성에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행하기도 하면서 시간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오세영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애의 전 과정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에 관한 도전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시간에의 적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²³⁾ 이는 인간 의식과 경험의 귀결인 문학 작품에서 '시간'이 세계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학에서의 '시간'은 그 누적된 물리적 시간의 의미뿐만 아니라시간의 역행이나 초현실적 개입으로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기형도와 그 작품들을 어떤 논의의 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린 그의 죽음은 그의 시 세계 속에 그대로 예언되어지듯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갖고 이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기형도 시에서그의 부정성이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과 부딪치면서 자연의 시간을 전도하여그 부정성을 시 속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 과거와 묶인 현재

기형도 시 속에 드러난 시간은 직선적인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대한 해체이다. 즉 기형도에게 있어 과거에 묶인 현재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 온시간에 대한 기억을 회상한다기보다는 현재와 과거의 어느 시점을 동일시하여, 현재의 부정성을 극렬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지나 온 시간을

²³⁾ 오세영, 『문학연구방법론』, 시와 시학사, 1993, p.106.



현재 시점에서 다시 떠올리는 과정은 지속되는 시간 속에 과거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묶어버리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름답다. 그것뿐이다.

오늘은 왜 자꾸만 기침이 날까. 내 몸은 얼음으로 꽉 찬 모양이야 방안이 너무 어두워 한달 내내 숲에 눈이 퍼부었던 저 달력은 어찌나 참을성이 많았던지 바로 뒤의 바람벽을 자꾸 잊곤 했어 성냥불을 긋지 않으려 했는데 정말이야. 난 참으려 애썼어 어느새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네 그래, 고향에 가고 싶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지만 사과나무는 나를 사로잡았어 그 옆에 은박지 같은 예배당이 있었지 틀린 기억이어도 좋아 멀고 먼 길 한가운데 알아? 얼음가루 꽉 찬 바다야 이 작은 성냥불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어머니는 나보고 소다가루를 좀 먹으라서 어디선가 통통 기타 소리가 들려 방금 문을 연 촛불가게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 참, 그런데 오늘은 왜 아까부터

- 「聖誕木- 겨울 版畵 3」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는 현재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며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이 시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그런데 화자가 기침이 나는 처음의 부분부터 어머니가 소다가루를 먹으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처음부분의 기침이 나는 시점이 과거의 오늘이라고 한다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의 '참, 그런데 /오늘은 왜 아까부터'의 종결부분과 연결되어 과거에 발생한 기침이 현재까지 그치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발병한 기침의 아픔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정성이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화자의 내부가 얼음으로 꽉 차 있어 춥고 시리지만 '성냥불'과 '촛불'의 힘은 이 냉기를 녹이기에는 터무니없도록 미약한 것이다. 결국 화자는 이러한 냉랭한 현실을 굳이 따뜻함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여기에 기형도의 부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흩어진 그림자들,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그 어두운 정오의 숲속으로 이따금 나는 한 개 짧은 그림자 되어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중략)

한때 절망이 내 삶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다.

그 절망의 내용조차 잊어버린 지금
나는 내 삶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
이미 대지의 맛에 익숙해진 나뭇잎들은
내 초라한 위기의 발목 근처로 어지럽게 떨어진다.
오오, 그리운 생각들이란 얼마나 죽음의 편에 서 있는가



(중략)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의 촛불은 이미 없어지고 하얗고 딱딱한 옷을 입은 빈 병만 우두커니 나를 쳐다본다.

- 「10월」부분

희망에 소극적인 시인에게는 과거의 기억마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시에서 화자는 모든 추억이 모인 '어두운 정오'의 숲에서 '그리운 생각들이란 얼마나 죽음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말하며 지난날들을 모두 죽음의 편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다. 밝은 낮이어야 할 시간이 과거의 기억의 절망과 묶여 있어 어두운 시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절망이 삶의 전부였던 화자는 그 절망에 익숙해져 지금은 그 절망의 내용조차 잊어버려, '삶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절망적인세계를 살아가는 시인에게 그나마 미약한 밝음의 속성을 지닌 '촛불은 이미없어지고' 죽음을 암시하는 '하얗고 딱딱한 옷'을 입은 '빈 병만'이 쳐다본다는 것은 죽음의 편에 서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에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하게도 희망이 부재하는 지극히 회의적인 기형도의 시간의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눈이 그친다.
인천집 흐린 유리창에 불이 꺼지고
낮은 지붕들 사이에 끼인
하늘은 딱딱한 널빤지처럼 떠 있다
가늠할 수 없는 넓이로 바람은
손쉽게 더러운 담벼락을 포장하고
싸락눈들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오른다.
흠집투성이 흑백의 자막 속을
한 사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
무슨 농구처럼 굽은 손가락들, 어디선가 빠뜨려 버린



몇 병의 취기를 기억해내며 사내는 문단힌 상회 앞에서 마지막 담배와 헤어진다. 빈 골목은 펼쳐진 담요처럼 쓸쓸한데 싸락눈 낮은 촉광 위로 길게 흔들리는 기침 소리 몇, 검게 얼어붙은 간판 밑을 지나 휘적휘적 사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밤,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없는 꽝꽝 빛나는, 이 무서운 백야 밟을수록 더욱 단단해 지는 눈길을 만들며 군용 파카 속에서 칭얼거리는 어린 아들을 업은 채

- 「白夜」부분

위의 시에서 설정한 '白夜'는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없는' 세계이며, 이러한 세계는 곧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숨쉼이 멈춰버린 종말의 상태다. 즉, 낮과 밤, 빛과 어둠, 흑백이 구분되지 않는 '白夜'는 죽음의 시간인 '무서운'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 두껍고 '검은 외투'²⁴⁾를 걸치고 다닌다. 더군다나 이러한 죽음의 세계속에서 '태연히 걸어가고 있는'(「어느 푸른 저녁」) 상황은 암울하고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부각시킨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지만 사내에게 있어서는 마치 낮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사내'가 끌고 온 지난날의 '기억' 때문이며 그러기에 과거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몇 병의 취기'와 현재의 '마지막 담배' 등을 통해서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어려운 처지의 사내에게 있어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긍정적인 변화 없이 부정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白夜는 언제부턴가 아들을 등에 업은 채 계속 걸어 다녔

²⁴⁾ 기형도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딱딱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을 '외투'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낸다. "두툼한 외투"(「장미꽃 인생」), "엎어진 망토를 향해"(「죽은 구름」), "검은 외투를 입은 중년 사내"(「가수는 입을 다무네」).



을 사내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시의 시간적 배경으로 쓰인 '겨 울'과 '밤'의 차갑고 어두운 속성이 실려 있는 白夜는 사내의 부정적인 내면적 시간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는 곧 기형도의 부정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은 블라인드를 내린다.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나는 침묵이 두렵다 침묵은 그러나 얼마간 믿음직한 수표인가 내 나이를 지나간 사람들이 내게 그걸 가르쳤다. 김은 주저앉는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한 번 꽂히면 어떤 건물도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김은 중얼거린다, 이곳에는 죽음도 살지 못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그것과 섞였다. 습관은 아교처럼 안전하다. 김은 비스듬히 몸을 기울여본다, 쏟아질 그 무엇이 남아있다는 듯이 그러나 물을 끝없이 갈아주어도 저 꽃은 죽고 말 것이다, 빵 껍데기처럼 김은 상체를 구부린다. 빵 부스러기처럼 내겐 얼마나 사건이 많았던가. 콘크리트처럼 나는 잘 참아왔다. 그러나 경험 따위는 자랑하지 말게 그가 텅텅 울린다, 여보게 놀라지 말게, 아까부터 줄곧 자네 뒤쪽에 앉아있었네 김은 약간 몸을 부스럭거린다, 이봐, 우린 언제나 서류뭉치처럼 속에 나란히 붙어 있네, 김은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아주 얌전히 명함이나 타이프 용지처럼 햇빛 한 장이 들어온다, 김은 블라인드 쪽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가볍게 건드려도 모두 무너진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네

김은 그를 바라본다, 그는 김 쪽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긴다, 무너질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가 김은 중얼거린다, 누군가 나를 망가뜨렸으면 좋겠네, 그는 중얼거린다. 나는 어디론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도시 어디서든



나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황할 것이다.

그가 김을 바라본다, 김이 그를 바라본다.

한 번 꽃히면 김도, 어떤 생각도, 그도 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김은, 그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나는 블라인드를 튼튼히 내렸었다.

또다시 어리석은 시간이 온다, 김은 갑자기 눈을 뜬다, 갑자기 그가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엉망이다, 예정된 모든 무너짐은 얼마나 질서 정연한가 김은 얼굴이 이그러진다.

- 「오후 4시의 희망」전문

위의 시는 '오후 4시의 희망'이라는 시의 제목과 달리 시적 상황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화자인 '나'의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는 '金'과 '그'와 '나'의 통합이 그로테스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험 따위는 자랑하지 말게 그가 텅텅 울린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존재는 '金'에게 보이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보여진다. '그'가 '金'과 '나'에게 완전한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의 처음 부분에서 '金'이 내린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어 온 '햇빛 한 장'을 통해서다.

'金'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죽음도 살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꽂혀진 '꽃'에 '물을 끝없이 갈아주어도'이미 자연 존재로서 생명을 잃은 꽃은 죽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이 도시 속에서 생명을 상실한 존재와 같은 '쇼'은 '나'의 모습이다. '그'가 보이기 전에는 '나'는 '죽음도 살지 못'하는 도시와 '오래 전부터' 섞여왔기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햇빛 한 장'에 의해서 '그'가 '金'에게 선명하게 보이고 그 동안의어두움과 어울리지 않은 햇빛을 몰고 온 '그'에 의해서 '金'은 무너지는 것이다. '金'인 '나'는 그래서 '나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와 통합되어 '나는 당황할 것이다'로 전이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나'는 과거에 이미 '블라인드를 튼튼히 내렸었다'며 이 '햇빛 한 장'의 햇살인 '그'를 과감히 차단하며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金'이 '갑자기 눈을 뜨'는 것은 햇빛인 '그'를 만났기 때문이며, '그'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 한줄기 햇빛마저 '金'인 내가 부정했기 때문이다. 즉 '나'는 희망을 배태한 '그'와의 통합이 아닌 '金'과 통합하면서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나'의 분열된 모습이기에 '그'의 울음은 '나'의 부정적인 의식의 산물이며 이는 화자 스스로 이 세계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절망적 울음은 '나'에게 희망을 소망하는 것마저 가로막힌 현실의 부정성을 의미하는 울음인 것이다.

누이여 또다시 은비늘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뼘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컹퀴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나리나리 개나리」전문

기형도의 현재 삶이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긍정적인 것이라면 시인의 유년 시절에 죽은 누이를 생각하며 지은 위의 시는 누이에 대한 추모의 양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이를 떠올리는 화자의 현재는 누이의 죽음 이후 더욱 비극적인 시간이 되었다. 즉, 누이가 소리 없이 꺾여 간 봄의 절망적기억이 현재에도 지속되어 '접혔던 꽃술을 펴고' 봄이 왔지만 '찬물로 눈을 헹구며'이 봄을 부정하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라고 절망적인 한숨을 토해 내며 비통에 젖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픈 과거의 체험과 현재는 같은 상황으로 묶여지고 이러한 지속 현상은 죽음만이 살아있는 시인의 부정적인 현실을 설명해 준다.

유리창, 푸른 옥수수잎 흘러내린다 무정한 옥수수나무...... 나는 천천히 발음해본다 석탄가루를 뒤집어쓴 흰 개는 그해 장마통에 집을 버렸다

비닐집, 비에 잠겼던 흙탕마다 잎들은 각오한 듯 무성했지만



의심이 많은 자의 침묵은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한다 밤 도시의 환한 빌딩은 차디차다

장마비, 아버지 얼굴 떠내려 오신다 유리창에 잠시 붙어 입을 벌린다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우수수 아버지 지워진다, 빗줄기와 몸을 바꾼다

- 「물 속의 사막」부분

위의 시에서 빗줄기는 시인의 유년기의 옥수숫잎으로 치환되고 다시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뀌어 현재 화자가 위치해 있는 유리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라는 진술은 아버지가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아버지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불쌍한 내 장난감'(「너무 큰 등받이 의자 - 겨울版畵 7」)이라는 표현으로 보아도 아버지에 대한 회의가 시인의 의식 속에 잠겨있다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마침 진눈깨비 흩날린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딱딱한 손이 들어 있다.
저 눈발은 내가 모르는 거리를 저벅거리며
여태껏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내들과 건물들 사이를 헤맬 것이다.
눈길 위로 사각의 서류 봉투가 떨어진다, 허리를 나는 굽히다 말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참 많은 각오를 했었다.
내린다 진눈깨비, 놀랄 것 없다, 변덕이 심한 다리여
이런 귀가길은 어떤 소설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구두 밑창으로 여러 번 불러낸 추억들이 밟히고
어두운 골목길엔 불켜진 빈 트럭이 정거해 있다.
취한 사내들이 쓰러진다, 생각난다 진눈깨비 뿌리던 날
하루종일 버스를 탔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낡고 흰 담벼락 근처에 모여 사람들이 눈을 턴다. 진눈깨비 쏟아진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 진눈깨비

- 「진눈깨비」전문

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상황은 흩날리는 진눈깨비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눈물은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지난한 삶의 조건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인 동시에 성숙한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우한 어린 시절, 어린 넋의 반향이라고 할 수 있다."25)

진눈깨비 속에서 그 눈물이 흐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선 화자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참 많은 각오를 했었다'는 것을 상기한다. 다음으로 '여러 번 불러낸 추억들이'구두 밑창에 밟히고, 다음 장면에서는 '하루 종일 버스를 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귀가'중인 화자의 내적 시간의 흐름이 점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유년 시절의 과거로 차츰차츰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가' 중이라는 설정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아니라 화자의 의식이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것은 현재 흐르고 있는 화자의 눈물은 유년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 눈물에는 "추방당한 자의 비애와 차단된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26)는 것이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상항 속에서 화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차단된 현실을 경험하면서 현재의 이 불행이 비단 현재의 불행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을 만큼 화자에게 있어서 이 현실 세계는 부정적 세계이다. 때문에 기형도는 미래마저 불행만이 기다리고 있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야했던 것이다. 이렇듯 5회 반복된 진눈깨비의 무거움이 실린 기형도의 세계는 절망에만 익숙해진 부정적인 세

²⁵⁾ 남진우, 앞의 책, p.193.

²⁶⁾ 남진우, 위의 책, 같은면.

Collection @ chosun

계인 것이다.

기형도는 이와 같은 시들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의 부정성을 시간의 지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즉 그 부정성이 결코 현 재의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상임 을 드러내어 시인의 부정적 현실을 더욱 비극화시키는 것이다.

2) 미리 늙어버린 '몸'

늙음에 이르기에는 아직 젊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화자에게 죽음은 분명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 미래의 시간에 확인하게되는 죽음을 마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현재의 육신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미래의 시간을 현재화시킨 것이다. 이는 화자의 죽음을 앞당김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고통과 절망의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시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한 세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시적 장치인 것이다.

아직 젊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인은 시 속에 화자인 '나'의 대상화된 자아인 타자를 '그'로 설정한다. 이 때의 '그'는 시인 자신의 몸에서 발견한 불안, 또는 불행을 함유하고 있고 시인은 '그'라는 '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내적 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한다. 만일 타자와 나 사이에 어떤 내적 관계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의 즉자가 다른 하나의즉자의 출현이나 소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처럼, 나는 타자의 출현이나 소멸로 인하여 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27)

기형도는 이러한 내적 관계로 이루어진 '나'의 대상화된 '타자'인 '그'를 설정하여 '그'를 관찰하며 '나'의 내면의 고통, 불안 등의 감정들을 비추어 내는

²⁷⁾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p.164.



것이다. 아래 시에서 화자인 '나'와 '타자'의 감정이 내적으로 연결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 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춥고 큰 방에서 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기억할 만한 지나침」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인 '나'는 유리창 너머 춥고 큰 사무실 안에서 홀로 울고 있는 한 '사내'를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나'는 사무실 안의 '사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는 사무실 안의 '사내'에게 화자인 '나'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나'는 그때의 '그'처럼 창 밖으로 눈이 퍼붓는 시점에서 '텅 빈 사무실'에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나'는 '사내'와 동질감을 느끼며 애써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위안 삼는 것이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육체를 침대 위에 집어던진다

그의 마음 속에 가득찬,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일제히 절그덕거린다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할 것인가 나는 이곳까지 열심히 걸어왔었다, 시무룩한 낮짝을 보인 적도 없다으오, 나는 알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내 정체를 눈치했을까

그는 탄식한다, 그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었다, 나에게도 그만한 권리는 있지 않은가

모퉁이에서 마주친 노파, 술집에서 만난 고양이까지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중얼거린다,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질질 끌고 왔는지, 그는 더 이상 기억도 못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는 낡아빠진 구두에 쑤셔박힌, 길쭉하고 가늘은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그렇다면 또 어디로 간단 말 인가!

-「여행자」전문

위의 시는 '그'라는 여행자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라는 3인칭을 표현될 때는 단순히 화자인 '나'에 의해 관찰되는 객관적인 진술이지만 '그'의 내면을고백할 때는 '나'라는 1인칭으로 표현되어 '그'의 내면을 주관적으로 진술하고있다. 이 시에서 '그'는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의 육체'를 가진 몸이다. 즉, 타자인 '그'의 행동은 화자인 '나'의 내면의 불안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속에 가득 찬 내면의 불안들을 숨기고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었'고 그래서 '시무룩한 낯짝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걸어왔다. 그러나 결국 '나'의 '정체'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타자'의 모습으로 감추어지고 있었던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육체, 즉 위태롭고 불안한 자신의 육체를 발견하고 '동물처럼 울부짖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내재한 타자를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타자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이며,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타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을 깨닫지만, '낡아 빠진 구두에



쑤셔 박힌 길쭉하고 가늘은 자신의 다리'는 그런 소망을 배반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그의 여행의 방향은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시인의 부정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 방향을 상실한 상태마저 멈춰버릴 때는 '마음속에 가득찬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모두 사라지는, 즉 타자의 죽음을 맞이한 때인 것이다.

시인은 또한 자신의 정신적인 늙음의 속성을 늙은 타자의 몸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때의 늙은 타자는 나에게 하나의 운명으로 다가오는 죽음인 것이다. 이를테면 기형도 시 속에서 늙은 타자는 시인의 몸이다. 그러기에 그의 시 속에서 타자는 노인들로 나타나고 그노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손님이 돌아가자 그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어슴푸레한 겨울 저녁, 집 밖을 찬바람이 떠다닌다. 유리창의 얼음을 뜯어내다 말고, 사내는 주저앉는다. 아아, 오늘은 유쾌한 하루였다, 자신의 나지막한 탄식에 사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쾌해진다. 저 성가신 고양이 그는 불을 켜기 위해 방안을 가로질러야 한다. 나무토막 같은 팔을 쳐들면서 사내는, 방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하고 중얼거린다. 나에게도 추억거리는 많다. 아무도 내가 살아온 내용에 간섭하면 안된다. 몇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사내가 한숨을 쉰다. 이건 여인숙과 다를 바 없구나, 모자라도 뒤집어쓸까 어쩌다가 이봐, 책임질 밤과 대낮들이 아직 얼마인가 사내는 머리를 끄덕인다,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다. 그렇다. 이런 밤은 저 게으른 사내에게 너무 가혹하다. 내가 차라리 늙은이였다면! 그는 사진첩을 내동댕이친다. 추억은 이상하게 중단된다, 그의 커다란 슬리퍼가 벗겨진다. 손아귀에서 몸부림치는 작은 고양이, 날카로우 이빨 사이로 독한 술을 쏟아 붓는, 저 헐떡이는, 사내

- 「추억에 대한 경멸」전문



집 밖은 '찬바람이 떠다니'고 불꽃을 일렁이며 타올라야 하는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는 썰렁한 큰 방에서 '그'이면서 '나'인 사내의 팔은 딱딱한 '나무토막'으로 굳어 있고 슬리퍼 또한 커서 벗겨진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는 결국 '나'의 내면이 된다. '책임질 밤과 대낮들이' 많이 남아 있어 '나'이면서 '사내'의 삶이 '가혹하다' 말하며 소멸을 꿈꾸며 '차라리 늙은이였다면!'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는 추억이 중단된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추억의 중단'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시인의 극렬한 부정성이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저녁의 정거장을 마음속에 옮겨놓는다. 내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짝들에게 나는 쓴다.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얼마든지 머물다 가시라고 모든 길들이 흘러온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정거장에서의 충고」부분

위의 시에서 화자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희망을 감시해 온 불안의 짐짝들에게 '누추한 육체 속에 얼마든지 머물다 가'라고 하는 여유로움을 보여 준다. 즉, 희망이 들어올 틈이 없는 늙음은 소멸할 때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렇게 늙음이라는 타자의 속성을 젊은 자신의 육체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시인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의 하나였다고볼 수 있다. "시인은 시간을 빨리 돌려 자신이 처한 존재의 힘겨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앞으로의 전진을 선택한 것이다. 진정코 이는 절망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행복한 선택이다."28)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길들이 흘러오지만, 화자의 몸은 이미 늙은 몸이기에 희망들을 받아들일 수

²⁸⁾ 기형도의 시는 부성원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동력을 잃었고 미래로의 투사가 불가능했던 그의 관심은 모성의 원리로 돌아가거나 유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미친 부성이 날뛰는 세계로부터 도피해 어린아이로 오래 있고 싶다는 여느 피터팬과 달리 기형도는 미친 세계의 길거리에 망연히 선채 '늙음'을 수락한다. 그것이 그가 보여준 용기였다.(장정일, 앞의 책, p.192.)



없고 이에 '희망을 감시해 온 불안의 짐짝'들은 감시를 멈추고 화자의 몸 속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마저 제거한 시인의 몸은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게 된다. 대신 희망의 여지는 완전히 봉쇄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기형도 시에 있어서 '그'는 '나'와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그'가 아니라, '나'의 대상화된 자아, '나'의 일부로서의 '그'이다. 그러므로 기형도의 죽음의 시들에 등장하는 '그'는 이 황폐한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시인의 비극적 인식이 만들어 낸 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²⁹⁾ 기형도의시인에게 자신의 젊은 육체는 곧 "거추장스런"(「늙은 사람」) 어떤 것이기에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 긴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들은

봄빛이 닿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 목을 분지르며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내 나이와는 먼 슬픔들을 나는 느낀다 그리고 그 슬픔들은 내 몫이 아니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고 죽어 있는 날렵한 가지들은 추악하다

- 「노인들」전문

시인은 늙음과 소멸을 동일시하면서 젊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 소멸을 희망하는 것이다. 늙음이라는 속성을 지닌 타자는 죽음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이 다 지나'가고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들은 기다렸다는 듯 목을 분지르며 떨어'지는 것이다.

화자는 죽어가는 나뭇가지들이 자신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맺을 수 없는 거리라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부러

²⁹⁾ 이광호,「黙視와 黙示 : 상징적 죽음의 형식」,『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솔, 1994, p.197.



지지 않고 죽어있는 날렵한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노인들을 '나는 혐오한다, 그의 짧은 바지와/침이 흘러내리는 입과/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허옇게 센 그의 정신'(「늙은사람」)을 추악하다고 중얼거리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속의 화자가 나이와 걸맞지 않게 늙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비밀을 그가 젊은 나이에 벌써 다 알아버렸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따라서 생에 대한 의욕이 더 이상 부재 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금의이 시점이 그에게는 생의 마지막 지점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30)

정신이 늙어있는 시인의 대상화된 타자의 이미 늙어버린 몸이 죽음에 들어서지 않자 시인은 '그의 육체 속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무엇이 거추장스럽다'(「늙은 사람」)고 말한다. 그래서 화자인 '나'는 타자인 '그'에게 자신의육체를 온전히 맡겨버린다.

나를 끌고 다녔던 몇개의 길을 나는 영원히 추방한다. 내 생의 주도권은 이 제 마음에서 육체로 넘어갔으니 지금부터 나는 길고도 오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중략)

김은 천천히 손잡이를 놓는다. 마침내 희망과 걸음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 순간, 쇠뭉치 같은 트렁크가 김을 쓰러뜨린다. 그곳에서 계집아이 같은 가늘은 울음 소리가 터진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빗방울은 은퇴한 노인의 백발위로 들이친다.

-「그날」부분

위의 시에서 '나'는 '타자'의 육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여행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당연한 듯 곧 '나'의 죽음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시인의 의식은 '인생을 증오한다(「장미빛 인생」)'라고 말할 정도로

³⁰⁾ 정효구, 앞의 책, p.267.

Collection @ chosun

그의 삶을 가혹하다 느끼고 있으며, 그런 그에게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기억할 만한 지나침」)는 것은 극단의 부정성을 함유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의 이러한 부정성은 늙은 '타자'를 자신의 젊은 육체 속으로 끌어와 미래의 그 날의 '죽음'을 미리 앞당김으로써 이 삶에서 '목을 분지르며 떨어지' 며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죽음을 사유한다는 것은 결국 현세의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사유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계몽주의적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전복이다."31) 그러기에 기형도의 시에서 부정성은 현재의 시간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죽음을 살아있는 자의 가까이에 놓고 있는 기형도의 시 세계는 "공격적 허무주의32)"의 얼굴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곰팡이 피어 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질서

(중략)

죽음은 생각도 못했다,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 왜냐하면 두려움이 나의 속성이며 미래가 나의 과거이므로

나를

³¹⁾ 이광호, 앞의 책, p.210.

³²⁾ 임태우, 앞의 책, p.403.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 「오래된 書籍」부분

위의 시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세계는 살아 온 것이 기적일 만큼 곰팡이가 피어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질서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시인은 그 어둠 속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두려움에 익숙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화자의 영혼은 검은 죽음의 색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이며 현재 화자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희망이 부재하는 세계를 드러낸다는 것은 화자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때 더욱 실제적이 된다. 이는 시인의 부정성에 함몰되어 그의 시속에 빠져들어 그의 죽음과 함께하게 만든다. 즉, 그의죽음의 상태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이 항상 함께할수밖에 없는 시인에게 미래에 도래할 가능성과 희망은 없다. 또한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가 암울했던 과거와 같은 것이라는 시인의 인식은 자신의 늙음을 확고하게 자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가 자신의 '과거'라고 단언하듯 말하는 시인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마저 단호하게 거부해 버린 것이다. 기형도가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출생 뿐이며' 그 이후의 자신이 살아온 삶은 기적적이었지만, 결국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극도의 절망적인 부정적인 인식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 떠도는 것은 현재의 찬란한 허무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미래와 과거는 현재의 다른 이름으로서, 지속하는 시간으로 현재에 묶인



다.33) 시간을 앞당겨서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상태를 끌어들이는 기형도가 보여 준 극렬한 부정성은 이 세계를 절망적이고 비극적으로 인식한 결과이 다. 이러한 시인의 부정성은 시의 화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부정적인 세계 속 에 죽음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한다. 죽음을 말하면서 삶을 말하 는 시적 형상화를 통해, 삶과 죽음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에게 '네 어찌 죽음을 비웃을 것이냐 삶을 버려둘 것이냐'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라며 자조하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 을 내버려두는 것은 삶을 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죽음이란 假面을 벗은 삶인 것'(「겨울・雪・나무・숲」)이기에 죽음의 진실은 이 생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며 '죽지않은 것은 오직/죽어 있는 것 뿐'(「나무공」)이라고 살아있는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다. 즉, 죽음을 현재 속에 살아있게 하는 부정적 세계인식은 죽음을 삶 그 자 체로 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2. 부정성이 놓여 있는 공간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조건은 시간과 공간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학과 공간의 관련성은 문학과 시간의 관계 양상만큼이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공간에 대한 선행의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들어 공간에 대한 관심은 시간과달리 사물의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질적인 체험들이새로운 전체로 동시성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미지를 시각적 재생이라는 제한된 틀로부터 포괄적인 뜻을 가진 공간성의 구축으로 확대한다는의도와 맞물려 공간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보인다.34) 시의 공간은 현실적공간에서 출발하지만 일상적인 공간과 차별성을 가지며 추상적인 허구 공간

³³⁾ 심재휘, 『한국 현대시와 시간』, 월인, p.192.

³⁴⁾ 오세영, 「현대문학의 본질과 공간화 지향」, 『문학사상』, 1986, 4-5월호.



과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창조의 장으로 자리 잡은 공간은 시적 사유가 모여드는 곳이며 작가의 내면에 잠식되어 있는 의식들이 모인 집결지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형도시에 나타난 부정성이 시적 공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그럼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떠돎의 공간, 공중 '빈' 곳

기형도의 시 속에는 '텅'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난다. '빈' 공간이 어떤 무엇인 가로 채워지리라는 희망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형도의 시에 나타나는 '빈' 공간의 이미지는 일말의 희망이 부재한 어둡고 쓸쓸한 부정적 이미지로 채워진다. 이는 기형도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부정성은 시의 화자로 하여금 '빈' 곳에 시선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속 에서, 텅 빈 희망속에서 어찌 스스로의 일생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 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넘겨보며 서표(書標)를 꽂기도 한다.

- 「오래된 書籍」부분

그렇다.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 「먼지 투성이의 푸른 종이」부분

위의 시에서처럼 시적 화자에게는 희망이 텅 비어 있다. 그러기에 세상 속



에 다른 사람들처럼 '분주히'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그 텅 '빈' 희망 속에 스스로 걸어가 세상과 정면으로 대응해보려고 하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곧 가볍게 튕겨지고 만다. 쉴 곳을 찾아보려 주위로 시선을 돌려보지만 그곳에는 황량한 '빈' 공간만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기형도는 이 땅위에 정지할 곳을 찾기 위해 허함이 가득한 공중을 내내 부유하게되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내부의 황량한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바깥 세계의 '빈' 공간으로 시선을 향한다. 그러나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빈' 공간이기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성이 텅 '빈' 공간만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영혼이기에 아직도 가지 않고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느냐. 네 얼마나 세상을 축복하였길래 밤새 그 외로운 천형을 견디며 매달려 있느냐. 푸른 간유리 같은 대기 속에서 지친 별들 서둘러 제 빛을 끌어모으고 고단한 달도 야윈 낫의 형상으로 공중 빈 밭에 힘없이 걸려 있다.

-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부분

그 공중의 '빈' 곳은 '대기 속에서 지친 별들'도 '고단한 달'도 힘겹게 빛을 모아보지만, 힘겹게 모인 빛마저 생명이 없는, '빈' 밭일 뿐인 것이다. 다시 말 해 하늘도 아닌 지상도 아닌 '빈' 공중만이 시적 화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다. '빈' 공간에서 시적 화자의 모습은 '가지를 막 떠나는 긴장한 이파리'의 모습과 같다. 그 가지를 떠나는 '이파리'는 생명력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시인의 부정적인 세계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어둠에 가려 나는 더 이상나뭇가지를 흔들지 못한다. 단 하나의 영혼(靈魂)을 준비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나는 그대 창문(窓門)으로 다가간다. 가축들의 순한 눈빛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길 위에는 가지를 막 떠나는 긴장한 이파리들이 공중 빈 곳을 찾고 있다. 외롭다. 그대, 내 낮은 기침소리가 그대 단편



(短篇)의 잠속에서 끼어들 때면 창틀에 조그만 램프를 켜다오. 내 그리움의거리는 너무 멀고 침묵(沈默)은 언제나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닌다. 그대는 아주 늦게 창문을 열어야 한다. 불빛은 너무 약해 벌판을 잡을 수 없고, 갸우뚱 고개 젓는 그대 한숨 속으로 언제든 나는 들어가고 싶었다. 아아, 그대곤 입김을 불어 한 잎의 불을 끄리라. 나는 소리없이 가장 작은 나뭇가지를 꺾는다. 그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기고 나는 내가 끝끝내 갈 수 없는 생(生)의 벽지(僻地)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대, 저 고단한 등피(燈皮)를 다 닦아내는 박명(簿明)의 시간, 흐려지는 어둠 속에서 몇 개의 움직임이 그치고 지친바람이 짧은 휴식을 끝마칠 때까지.

-「바람은 그대 쪽으로」전문

위의 시에서는 어둠에 가려 흔들지조차 못하는 나뭇가지에 가지를 막 떠나는 긴장한 이파리들이 공중을 찾고 있다. 침묵은 시의 화자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다 가장 작은 나뭇가지를 꺾고 바라본다. 시의 화자가 끝끝내 갈 수 없는 생의 僻地(벽지)를 '몇 개 움직임이 그치고 지친 바람이 짧은 휴식을 끝마칠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끝끝내 갈 수 없는 생의 벽지, 그것은 살아서는 닿지 못한 '죽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아서 닿지 못하기에 살아서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칼자국을 그으며 미친 바람'이 '공중에서 휙휙 솟구치는 수천 개 주삿바늘'(「폭풍의 언덕」)이 되어 날아다니는 비극성이 극렬하게 표출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공간을 꿈꾸고, 그 꿈은 '가지를 막 떠나는 긴장한 이파리'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처럼 기형도의 시에서 '이파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형도는 이 어둡고 암울한 세계와의 내면적 갈등을 가지에서 떠나 떠내려가는 '이파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중'은 하늘과 지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이자 떠돎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공중은 '안개, 눈, 비, 바람, 구름' 등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공간인 것이다.



어느 곳이든 기척 없이 자리를 바꾸던 늙은 구름의 말을 배우며 나는 없어질 듯 없어질 듯 生 속에 섞여들었네

-「식목제」부분

이상하기도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나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른다.

- 「어느 푸른 저녁」부분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 온 이 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부분

이처럼 순간적인 존재들의 사라짐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바로 어디에선가 몰려왔다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는 구름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 구름이 머무는 공중은 하늘도 지상도 아닌 그 어디에서 속하지 않기에 부정적인 공 간이 되는 것이다.

이 읍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잇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軍團은 샛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안개」부분

기형도의 시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시어가 좀처럼 보이지 않은데, 위의 시에서도 시인은 공간을 고체화시켜 부정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태양은 '노랗고 딱딱'하고, 공중은 두껍다고 말한다. 생명력이 아닌 비극적인 소멸의 공간으로 나타내는 것은 기형도의 부정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시적 형 상화의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공중에 두껍게 떠도는 '안개' 때문이다.

질투는 나의 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었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질투는 나의 힘」전문

위의 시에서 시의 화자는 마음에 많은 공장을 세우고 어리석게도 기록할 것이 많았으나, 공중에서 머뭇거리다 가진 것이 탄식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빈'방에 홀로 갇혀 외로움에 떨며 훌쩍거리던 그 울음이 떠나지 않고 잔존



해 있는 것이다. 공중을 배회하며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희망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았기에 희망의 내용은 '질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번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스스로를 부정하기까지에 이르는 것이다.

가을도 가고 몇 잎 남은 추억들마저 천천히 힘을 잃어갈 때 친구여, 나는 그때 수천의 마른 포도 이파리가 떠내려가는 놀라운 공중(空中)을 만났다. 때가 되면 태양도 스스로의 빛을 아껴두듯이 나 또한 내 지친 정신을 가을 속에서 동그랗게 보호하기 시작했으니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었네. <중략> 여름이 가기도 전에 모든 이파리 땅으로 돌아간 포도 밭, 참담했던 그해 가을, 그 빈 기쁨들을 지금 쓴다 친구여.

- 「포도밭 묘지 1」부분

위의 시에서 화자는 '몇 잎 남은 추억들마저 힘을 잃어갈 때', '수천의 마른 포도 이파리가 떠내려가는 놀라운 공중을 만났다.'고 말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시의 화자가 꿈꾸는 것은 죽음이다. 시의 화자인 '나'는 죽음을 꿈꾸고 죽음 또한 '나'의 지배를 꿈꾸는 것은 죽음과 나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죽음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꿈꿀 정도로 이 세계에 대한 부정성이 시인의 내면에 깊이 침식해 있는 것이다. 자신이 공중에서 이리저리 휘날리는 것처럼 죽음의 매개물인 떠내려가는 이파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가까운 곳에 있지 않고 '머나먼' 곳에 있다. 그래서 '태양이 스스로의 빛을 아껴두듯이' 현실에 지친 정신을 죽음에 지배당하는 꿈에 보호 받고 또한 감히 '빈'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밤은 그렇게 왔다. 포도압착실 앞 커다란 등받이 의자에 붙어 한 잎 식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은 화염처럼 고요해지고 언제나 내 눈물을 불러내는 저 깊은 空中들. 기억하느냐, 그해 가을 그 낯선 저녁 옻나무 그림자 속을 홀연히 스쳐가던 천사의 검은 옷자락과아아, 더욱 높이 흔들리던 그 머나먼주인의 임종.

- 「포도밭 묘지 2」부분



현실의 부정성에 더 침잠해 갈수록 시인의 마음속에는 검은색이 뒤덮이고 따라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모두 어둠과 관련된다. 그리고 '빈' 기쁨의 '공 중'을 바라보지만 기다리던 '임종'은 머나멀기만 하다는 꿈을 다시 한번 거듭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죽음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기에 '공중의 욕망'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이 머물 거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존재에 불과하고 시인은 이 영역에서 방황하는 눈송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 눈이 몹시 내렸다.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지상은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지 위에 닿을 듯하던 눈발은 바람의 세찬 거부에 떠밀려 다시 공중으로 날아 갔다. 하늘과 지상 어느 곳에서도 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時作 메모」부분

위의 시「시작메모」에서 보듯 화자는 하늘 공중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대지 위에 닿을 듯' 하다가도 어느새 지상의 거부에 공중으로 떠밀려간다. 지상에서나 하늘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정쩡한존재, 이러한 시적 화자의 삶은 곧 사라져버릴 진눈깨비와 같은 것이다. 명확하게 비도 되지 못하고 눈도 되지 못한 채 공중 어느 곳에 자취도 없이 녹아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는 바로 공중이 지닌 비극성이고 이곳에서마저 거부당하고 던져지는 시인을 기다리는 것은 어두운 골목길에 정지해 있는 '빈'트럭(「진눈깨비」) 뿐이다.

찾지 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이제 해가 지고 길 위의 기억은 흐려졌으니 공중엔 희고 둥그런 자국만 뚜렷하다.



물들은 소리없이 흐르다 굳고 어디선가 굶주린 구름들은 몰려왔다. 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온 이 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말라......

-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부분

세상에 던져진 시적 화자를 기다리는 어둠 속 '빈' 트럭 안에서 시인은 이세상에서 움직이는 활발히 움직이는 생명력을 없앤 채 물은 소리 없이 흐르다 군고 구름들은 굶주려 있으며 나무들이 잎을 피워내는 것은 그 속의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즉 부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시인에게 모든 물질들은 죽음 가까이에 다가선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이렇게 사물화 되어 나타나는 세계가 기형도가 바라보는 부정적 세계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나를 찾지 말라'며 세계와의단절을 말하며 외로운 '빈' 집에 자신을 가두고 마는 것이다.

2) '빈' 집에 스스로 갇힌 외톨이

가정의 보금자리가 되는 집은 가족 구성원에게 보호와 휴식의 공간이 되며, 특히 가족 밖의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공간이 된



다. 이러한 집의 울타리 안에서 유년이라는 공간은 소망을 꿈꾸게 하고 냉정한 세계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때때로 추억의 이름으로 회상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유년은 포근한 공간이다. 이는 세상이라는 거대하고 냉철한 벽이 보이기 전인 원형의 공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형도의 시에서 유년은 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로 드러난 공간은 아니다. 기형도 시에서 유년은 가장 가까운 누이(「나리 나리 개나리」)의 죽음과삼촌의 죽음(「삼촌의 죽음-겨울 版畵 4」)의 경험이 덧씌어진 공간이다. 기형도에게 유년은 곧 아픔과 상실이 스며있는 공간인 것이다.

유년시절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빈' 방의 체험에 익숙해져가는 시인의 경험은 아래 시「위험한 家系・1969」에 잘 나타나 있다.

1

그 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남폿불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이젠 그 얘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에 등을 기댄 채 큰누이가 소리질렀다. 그런데 올해에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나는 공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주세요. 스펀지마다 숭숭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올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실 거구. 풍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잖아요. 마늘을 까던 작은누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이미 위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가만히 고쳐매셨다.

2

아버지, 그건 우리 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껏 돌보세요. 나는 사료를 한 줌 집어던지면서 가지를 먹어 시퍼래진 입술로 투정을 부렸다. 농장의 목책을 훌쩍 뛰어넘으며 아버지는 말했다. 네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야. 양계장 너머 뜬, 달걀 노른자처럼 노랗게 곪은 달이 아버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이리저리 흔들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팔목에 매달려 휘 휘 휘파람을 날



렸다. 내일은 펌프 가에 꽃 모종을 하자. 올 봄엔 벌써 열 살이다. 어머니가 양푼 가득 칼국수를 퍼담으시며 말했다. 알아요 나도 이젠 병아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웬 칼국수에 이렇게 많이 고춧가루를 치셨을까.

3

방죽에서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가을 밖의 어둠 속에서 큰 누이는 냉이꽃 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왔다. 이번 달은 공장에서 야근 수당까지 받았 어. 초록색 츄리닝 윗도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요새 친구들이 많이 입고 출 근해. 나는 오징어가 먹고 싶어, 그건 오래 씹을 수 있고 맛도 좋으니까. 집 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었다. 누이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스푼이 자꾸만 음 악 소리를 냈다. 츄리닝이 문제겠니. 내년 봄엔 너도 야간고등학교라도 가야 한다. 어머니, 콩나물에 물은 주셨어요? 콩나물보다 너희들이나 빨리 자라야 지. 엎드려서 공부하다가 코를 풀면 언제나 검뎅이가 묻어나왔다. 심지를 좀 잘라내. 타버린 심지는 그을음만 나니까. 작은누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좀 보세요. 어떤 약도 듣지 않았잖아요. 아프시기 전에도 아무것도 해논 일이 없구. 어머니가 누이의 뺨을 쳤다. 약값을 줄일 순 없다. 누이가 깍던 감자 가 툭 떨어졌다. 실패하시고 나서 아버지는 3년 동안 낚시질만 하셨어요. 그 래도 아버지는 너희들을 건졌어. 이웃 농장에 가서 닭도 키우셨다. 땅도 한 뙈기 장만하셨댔었다. 작은누이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죽은 맨드라미처 럼 빨간 내복이 스웨터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채소 씨 앗 대신 알약을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4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무엇하겠느냐. 묵은 밭에서 작년에 캐다 만 감자 몇 알 줍는 격이지. 그것도 대개는 썩어 있단다. 아버지는 삽질을 멈추고 채마밭 속에 발목을 묻은 채 짧은 담배를 태셨다. 올해는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뿌리가 질기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심을 작정이다. 하늘에는 벌써 티밥 같은 별들이 떴다. 어머니가 그만 씻으시래요. 다음날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팔꽃들은 저렇게 오므라들어 잠을 잘까. 아버지는 흙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셨다. 봐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그러나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

5

선생님, 가정방문은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의 월말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둑방에는 패랭이 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모두 다 꽃씨들을 갖고 있다니. 작은 시앗들이 어떻게 큰 꽃이 될까. 나는 풀밭에 꽂혀서 잠을 잤다. 그날 밤늦게 작은누이가 들어왔다. 아버진 좀 어떠시니. 누이의 몸에서 석유 냄새가났다. 글쎄, 자전거도 타지 않구 책가방을 든 채 백장을 돌리겠다는 말이냐?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려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우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6

그 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런지. 털실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얼음장 위에서도 종이가 다 탈 때까지 네모반듯한 불들은 꺼지지 않았다. 아주 추운 밤이면 나는 이불 속에서 해바라기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을 잤다. 어머니 아주 큰 꽃을 보여드릴까요?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숴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꽃 모종을요.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家系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冬至의 불빛 불빛.

- 「위험한 家系・1969」전문

모두 6연으로 되어 있는 이 시는 가난한 집의 위태로운 상황을 담담하지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969년 늦봄에 쓰러진 아버지가 김장철이 다가오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의 두 누이들은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어머니의 모습은 화자의 두누이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에 대해 희망을 잃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화



자의 주요 관심사는 '스펀지마다 숭숭 구멍이 난 잠바'이다. 이런 화자에게 아버지의 모습은 생업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무능한 아버지로 인식된다. 화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우리 닭도 아닌데 남의 닭을 정성스럽게 키우고, 먹거리가 되지 않을 '꽃 모종'을 심는 일인 것이다. 여기에 알 수 있는 사실은 화자는 스스로도 아버지의 모이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병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대신한 어머니는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고 계셨기에 어린 시적 화자에게 따뜻하고 풍성하고 내밀한 모성을 충분히느끼게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난은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이고물리적인 상처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 화자에게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낸다. 아버지의 투병생활이 지속되자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점점 줄어들고 어머니뿐 아니라 누이까지 생계 터전으로 나가는 힘들고 고달픈 지친 생활이 이어진다. 그러한 현실에서 어린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를 띄우'는 일 뿐인 것이다. 평이한 진술이지만 이 안에서시적 화자의 내재된 아픔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다. 즉 책가방 속에 월말고사 상장이 들어 있지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저 冬至의 불빛 불빛.'은 밝고 따뜻한 위로의 불빛이아니라 밤이 가장 긴 동지에 대응하는 불빛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곧 사고라지고 말 뿐인 순간의 불빛이라는 점이며 용수철 또한 그 탄력으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가 버리는 속성을 감안하면 이곳에는 희망이 잔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시적 화자의 유년의 집은 아버지의 쓰러짐으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를, 아버지 대신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어머니로 인해 모성의 부재까지 담긴 시인의 정신적인 '빈' 집인 것이다. 이러한 집에서 어린 시적 화자는 홀로 '빈' 방에 남겨지고 그 안에서 화자는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 걱정」전문

위의 시에서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자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울고 있다. '해가 시든지' 오래지만 가족의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가 시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이간 창 틈 밖으로는 어둠의 세계이고,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찬밥'이라는 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냉기가 가득 서려있는 차가운 방 안이다. 모성의 부재가 따뜻한 온기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마를 기다리며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화자 자신의 고립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 썰렁한 차가운 방에서 시적 화자는 외롭게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점은, 대부분 어린 아이라면 하기 싫은 숙제를 얼른 끝맺어 버릴 테지만 이 시에서의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며 '천천히 숙제'를 하고 있다. "화자는 심각한 고립감과 단절감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절감하면서 '천천히 숙제'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숙제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과 세계를

이어주는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숙제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찬밥처럼 냉기를 몸 속에 품고 있는 위 작품속의 화자는 마침내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게 된 것이다."35)

따라서 2연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서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유년의 윗목' 은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반대로 차디차고 어둡고 무서운 체험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공간의 기억은 자신의 울음소리만 가득하고 이 울음은 기형도의 전체 삶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탄식밖에 없는'(「질투는 나의 힘」) 삶으로 연결되며 모든 비어 있는 것들 가까이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아래 시「바람의 집-겨울 版畵 1」에서는 이제는 시적 화자가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며 '빈' 방에서 훌쩍거리며 우는 어린 화자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거대한 세상과 정면으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다.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얘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 「바람의 집 - 겨울 版畵 1」부분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방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무딘 칼 끝으로 무'를 깎아 주시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 문풍지를 더듬는 바람소리가 무섭다 고 호소한다. 그러나 방 밖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러한 시의 외적 상황은 실 상은 시적 화자의 황폐한 내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황량한 내 부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무서움

³⁵⁾ 정효구, 앞의 책, p.261.



에 떨고 있는 시적 화자를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기는커녕 "그 울음 소리의 근 원지가 바로 시적 화자의 내부에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세계-삶 의 비극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한다."36)

어머니는 세계와 맞서 '빈' 방에 홀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시적 화자가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이제는 시적 화 자가 언제까지나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며 빈방에서 훌쩍거리며 사는 병아리 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세상의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대응하고 극복해나가야 함을 시적 화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세상의 그 거대 한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벽안의 그늘에 유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즉 시적 화자의 외적 텅 '빈' 공간은 다시 화자의 내적 세계의 '빈' 공간으로 전이되어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속에서 "거대한 공동(空洞)"37)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공간은 "나는 외톨이"라는 의식으로 속속들이 채워져 간다. 이러한 외톨이 의식은 시의 화자로 하여금 밖의 현실 세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지향하게 한다.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 「대학 시절」전문

³⁶⁾ 남진우, 앞의 책, p.164.

³⁷⁾ 남진우. 위의 책. p.179.



위의 시에서 보듯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고 총성이 울리는 부정적 세계속에서 시적 화자는 '돌층계 위에서' '플라톤을 읽었다'고 말한다.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지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은 현실 세계에서 시인은 그들과 같이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총성이 울리는 대학 교정에서 플라톤을 읽으며 스스로를 그 시대의 큰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외톨이로 만들어 버린다. 이상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곳곳에 부정성이 도래하는 세계를 훌훌 털어버릴 수도 없는 중간자적 존재의 비애,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단절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속으로 파고들면서 마련한 것이 바로 '빈' 집인 것이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빈 집」전문

전망부재의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시인은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기에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시인은 '사랑을 잃고'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쓴'다. 그리고 그의 시작의 끝은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인지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스스로 문을 잠그고 빈집에 갇혀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어둡고 캄캄한 현실 세계인



밤도 '잘 있거라'하고 이별을 고하며 세계와의 단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인은 도저한 부정으로 가득찬 현실 세계와 단절로 앞서의 '진눈깨비'의 반복과 같이 '잘 있거라'의 3회 반복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는 단절의 의미를 강화하며 '빈집'에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이다. 기형도가 갇힌 '빈' 집을 시인의 몸으로 파악하면 그의 몸은 애초에처음부터 비어있었듯이 그 내부에 희망이 부재하는 텅 비어 있는 몸인 것이다.

구름으로 가득찬 더러운 창문밑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다. 마루바닥 위에 그의 손은 장난감처럼 뒤집혀져 있다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온 것처럼 비닐 백의 입구같이 입을 벌린 저 죽음 감정이 없는 저 몇 가지 음식들도 마지막까지 사내의 혀를 괴롭혔을 것이다 이제는 힘과 털이 빠진 개 한 마리가 접시를 노린다 죽은 사내가 살았을 때, 나는 그를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다. 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했다. 술과 침이 가득 묻은 저 엎어진 망토를 향해. 백동전을 던진 적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자신만이 홀로 즐겼을 생각 어느 한때 분명 쓸모가 이었을 저 어깨의 근육 동정심 많은 부인들을 위한 선물이었으리 어쨌든 구름들이란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 미치광이, 이젠 빗방울조차 두려워 않을 죽은 사내 자신감을 얻은 늙은 개는 접시를 엎지르고 마루 위엔 사람의 손을 닮은 흉측한 얼룩이 생기는 동안 두 명의 경관이 들어와 느릿느릿 대화를 나눈다 어느 고장이건 한두 개쯤 이런 빈집이 있더군, 이따위 미치광이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죽어갈까 더 이상의 흥미를 갖지 않는 늙은 개도 측은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저 홀로 없어진 구름은 처음부터 창문의 것이 아니었으니

- 「죽은 구름」전문

위의 시「죽은 구름」을 통해 시인이 죽음을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관찰자로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치광이로 취급되는 '사내'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서 바라 본 것이다.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묘사된 사내의 고단한 삶은 화자의 메마른 시각으로 냉철하게 보여 지고 있다. 한 미치광이의 행적이 타인들에게 아무런 관심과 의미도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 내용은 기형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유된 정서가 표출된 거라고볼 수 있다. 그러한 도저한 부정성은 결국 '죽은 구름'은 '저 홀로 없어진 구름'이며 '처음부터 창문의 것이 아니'라는 차갑고 냉랭한 태도로 나타난다. 처음부터 창문의 것이 아닌 구름은 애초부터 삶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의 공간으로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 등장하는 구름은 현실에 동화되기 힘든 고독하고 소외된 자의 모습이며 시인의 외로운 삶을 대변하는 비극적인 구름으로 볼 수 있다.

시인 자신의 객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 세상에 대한 부정성은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세계의 전부이며, 구름마저죽어 있는 이 현실을 거부한 미치광이가 택한 곳이 '빈' 집인 것이다. 그러나이러한 '빈' 집에서도 시인은 안주할 수 없다. 그에게 '빈' 집은 애초부터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홀로 없어진 죽은 구름처럼 시인 자신을 이살아있는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인물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장마비 빈 빌딩에 퍼붓는다 물위를 읽을 수 없는 문장들이 지나가고 나는 더 이상 인기척을 내지 않는다

- 「물 속의 사막」부분



어둠 속 텅 '빈' 빌딩으로 비가 퍼붓고 외톨이임을 스스로 인식한 화자는 그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으며 이 부정적인 세계와 차가운 단절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빈' 집에 갇혀 '외로운 천형'(「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을 견디다 이 살아있는 생과 작별을 고했던 것이다.



Ⅳ. 결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을 기형도의 시 속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어떤 희망의 징후의 단서를 쉬이 찾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시 세계는 부정성으로 진하게 물들어 있다. 기형도가 보는 세상은 빛보다는 어둠에 더 근접해 있었고, 그 어둠 속은 차가운 공기가 내내 떠나지 않은 곳이었다. 기형도는 그곳에서 미비한 희망을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확실한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즉, 그의 시에는 삶의 부정성으로 인한 죽음이 배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은 그의 시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기때문에 그의 시 속에 드러난 죽음을 말하지 않고는 그의 시를 논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기형도의 부정적 세계관 형성의 원인을 가족사적인 배경과 시대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았다.

기형도는 죽음도 삶의 일부로 느껴질 만큼 불우한 유년을 경험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부성의 부재와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생계 전선으로 뛰어든 어머니로 인해 모성의 부재까지 이루어진 유년의 공간은 어린 기형도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한낱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원적인 근거지의 해체라는 점에서 매우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시인이 부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되는 근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시인이 부정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가족의 죽음이다. 누이와 삼촌의 가까운 가족의 죽음체험은 기형도에게 내면의 상처를 안겨주며 그의 의식세계에 부정성을 깊숙이 침투시켜 주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의 산물로 그가 유년을 기억하는 시에서 드러난 가족들의 모습은 병들어 "가늘게 휘청거리며"(「위험한 가계·1969」) 걸어 다니고 "유리막대처럼 위태로운 모습"(「폭풍의 언덕」)들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망이 부재하는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적 배경도 그의 부정적인 의식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여타 청년들처럼 시인도 1980년대의 어수선한시대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시위에 직접 참여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철야농성과교내 시위에 가담하기도 했으며 시위 중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기도했다. 그러나 잔혹한 시대의 부정에 맞선 민중의 저항이 권력과 폭력의 힘에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하고 시인은 침묵을 통해 세계와단절하는 길을 서둘렀던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기형도의 부정성이 시 속의 시·공간에 드러나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형도는 어느 부정적인 과거의 시점과 현재를 동일시하여 현재 삶의 부정성이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상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하게도 희망이 부재하는 지극히 회의적인 기형도의 시간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정성이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형도는 현재의 부정성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간의 지속을 통해 비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부정성은 아직 늙기에는 이른 젊은 시인이 '나'의 대상화된 '늙은 타자'를 설정하여 미래에 도래할 죽음을 현재로 끌어와 '미리 늙어버리 기'를 끊임없이 추구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이 이미 늙어버린 몸을 노래한 것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청춘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미리 모든 희망을 잃고 늙어버린 정신세계를 몸이 담아내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늙음이라는 속성을 지닌 타자는 죽음 가까이에 있다. 시인은 이러한 늙음과 죽음을 동일시하고 젊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결국 '가지 잘린 늙은나무'(「炳」)가 되어 '불을 지피'(「겨울・雪고・나무・숲」)고는 이 삶에서사라지는 존재의 소멸을 희망한 것이다. 즉 희망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을 재촉한 것이다.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파괴시키고 그 질서에 대한 부정을 통해 죽음을 현재 속에 살아 있게 하는 기형도의 부정적인 시간인식은 죽음을 삶 그 자체로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부정적인 시간인식에 이어 기형도의 시 속에 많이 나타나는 '빈' 공간 또한 일말의 희망이 부재한 부정성을 드러낸다. 시인이 처음부터 자리한 공간은 '빈' 속성을 지녔기에 어느 곳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속성이 텅 '빈' 공간만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은 끝내 기형도의 짧은 생애 동안 따뜻함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장에 나간 엄마를 차가운 '빈' 방에서 훌쩍거리며 기다리던 아픔은 기형도의 내면에 더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이 아픔을 지닌 채로 시인은 하늘도 지상도 아닌 공중 '빈'곳을 떠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공중이라는 공간은 '안개, 눈, 비, 바람, 구름' 등이 일시적으로 머물 렀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부정적인 공간이며 시인 역시 이곳에서 명확하게 비도 되지 못하고 눈도 되지 못한 채, 공중 어느 곳에 자취도 없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방황하는 눈송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공중이 지닌 비극성이고 이곳에서마저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기에 시인은 이 냉혹 하고 험악한 세상과 단절을 말하며 외로운 '빈' 집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말았던 것이다.

부정적인 세계와의 단절을 위해 스스로 마련한 공간이 '빈' 집인데 그곳은 처음부터 '빈' 공간의 속성을 지녔기에, 이는 기형도의 시에서 희망이 부질없 음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형도가 '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길 위에서 중얼거리다」)과 단절하며 '천천히 얇고 검은 입술을 다물고'(「가수는 입을 다무네」) 다다른 곳은 죽음인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 지성사, 1989. 기형도 외,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기형도 추모 문집), 솔, 1994. 기형도 전집 편찬 위원회 엮음, 『기형도 전집』, 문학과 지성사, 1999.

2. 기타 자료

김경복, 「유배된 자의 존재시학」, 『문학과 비평』, 1991.

김정화, 「기형도 시의 죽음의 동력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정효,「기형도 시의 비극적 세계인식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김 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속의 검은 잎』, 문학과 지성사, 1989.

권순부, 「기형도 시의 시·공간 재구축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남진우,「신성한 숲」,『신성한 숲-남진우 평론집』, 민음사, 1997.

_____, 「숲으로 된 푸른 성벽」, 『숲으로 된 성벽 -남진우 평론집』, 문학동 네. 1999.

모리스 블량쇼(박혜영 역),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8.

문관규,「기형도 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덕규,『시인열전』,청동거울, 2001.

박상찬,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의 상상력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1.

Collection @ chosun

박철화, 「집 없는 자의 길 찾기, 혹은 죽음」, 『문학과 사회』, 1989.

박해현, 「정거장에서의 추억」, 『문학정신』, 1989.

반경환, 「80년대의 시적 전개 양상과 90년대 시의 생성의 자리」, 『현대시 세계』, 1992.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심재휘, 『한국 현대시와 시간』, 월인, 1998.

오세영, 「현대문학의 본질과 공간화 지향」, 『문학사상』, 1986.

, 『문학연구방법론』, 시와 시학사, 1993.

이광호,「默視와 默示 : 상징적 죽음의 형식」,『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솔, 1994.

이광형, 「기형도 시의 상상력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화현대시연구회,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임태우, 「죽음을 바라보는 자의 언어」, 『작가세계』, 1991.

원전식,「기형도 시의 현실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의섭, 「기형도 시의 시간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장석주, 「기형도 혹은 길 위에서의 중얼거림」, 『현대시 세계』, 1989.

장정일, 「기억할 만한 질주, 혹은 용기」,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솔, 1994.

정효구,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현대시학』, 1989.

허미선,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실존의식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동호, 『80년대 젊은 시인들-이성복에서 기형도까지』, 시민, 1990.

프랭크 커모드(조초희 역),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문학과 지성사, 1993.